

#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경남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 Focus on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Gyeongnam Region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심미영\*  
한국국제대학교 사회서비스학과  
박사수료 황순금\*\*

Dept.of Social Welfare, International Univ.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Sim, Mi Young

Dept.of Social Service, International Univ. of Korea  
*Dissertator* Hwang, Soon Keum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adolescents who are studying in middle schools of the Gyeongnam region, aims to provide methods for improving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rough the enhancement of family strength. It will examine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of school adjustment.

The summarization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ocial support demonstrated that family strength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support. That is, as

\* 주저자 : 심미영(sim312@hanmail.net)

\*\* 교신저자 : 황순금(sarahwang115@naver.com)

family strength was higher, social support increased.

Second,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chool adjustment show that family strength would have a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which is positive. Where family strength was higher,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as also higher.

Third, the results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when controlling family strength demonstrate that social support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however, family strength did not predict school adjustment. Therefore, the complet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school adjustment was identified.

In conclusion, it was identified that family strength had an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but not a direct effect. Therefore, it is indicated that indirect intervention through the social support system as well as direct intervention for the improvement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s requir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would be more important variables than control variable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family in terms of school adjustment. Therefore, the recognition that the responsibility in adjusting to school is the common role of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y going beyond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of adolescents is needed.

**Key Words** :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 I. 서론

청소년은 아동기나 성인기보다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의 청소년은 경험하는 관계들에 의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부적절한 자아를 갖게 되어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홍봉선·남미애, 2010). 특히, 청소년 시기 중 중학생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초기 청소년 단계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서의 중요성을 지니며 과도기적 단계로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라는 환경에서 보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서 학교는 다른 환경보다 중요한 사회적 체계이다. 청소년에게 학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기초훈련의 장소로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성취를 통해 지적능력을 개발하며, 더 나아가 자아를 확립해나가는 과업을 발전시키는 나감으로써 성공적인 학교적응은 사회적응의 중요한 예측인자가 된다(김경은·최은희,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7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제도교육을 이탈하며 주된 사유로는 학업부적응(45%)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러한 현상들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개인, 가족, 학교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즉, 개인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 Erath, Flanagan & Bierman(2008)는 대인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문은식(2002)은 학교적응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사회심리적 변인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내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로 송희원·최성열(2012)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을, 임선아(2013)는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개인요인에 초점을 두고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상의 특징을 고려한 개인적 요인뿐 만 아니라 학교적응의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의 통합 관점(Barbara & Martha, 1999; 민동일, 2007; 장성화, 2010; 김경은·최은희, 2010)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에 대한 환경은 학교적응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집단의 특성을 배제한 채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는 것이다(김경은·최은희, 2010). 최근 청소년분야에서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관계에 대한 연구(박민주·황기아, 2006; 임정아·이인수, 2006; 이혜경, 2009; 김경은·최은희, 2010)에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연구결과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의 긍정적 예측요인이 발견되었다.

또 다른 접근으로 인간성장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에 초점을 두었다. 즉, 인간은 성장하면서 가족,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가족은 인간이 첫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아기부터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청소년은 가족, 학교, 사회 체계 속에서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지지받고, 인정받으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개입은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요한 예측인자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선행연구(Mallinckrodt & Wei 2005; 손태주, 2012)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어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의 예측인자임을 확인시켜 준다.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연구결과(장성화, 2010; 정지영·임정하, 2011; 위중희, 2012 ; 이지훈·박옥임·김진희, 2012)를 통해서 정적인 관계가 검증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청소년기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Kaplan, 1977),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크고 지지 제공의 양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손향숙, 2005)시킴으로써 개인의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노충래·김설희, 2012)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모델로서 완충역할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Guest & Biasini, 2001; 손향숙, 2005; 박재연, 2009; 엄태완, 2009; 표갑수·이진성, 2009; 노충래·김설희, 2012)들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매개효과 검증은 아니지만 이상에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의 연구결과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으며, 가족건강성이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가족, 학교, 사회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 온 과도기적인 시기이며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는 시기로서 중2 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고, 의무교육으로 고등학생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진입한 초기단계의 청소년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는 개인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본 연구가 대부분으로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에서 벗어나 가족, 사회, 학교의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의 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완충역할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족건강성 향상을 통한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선행연구

### 1. 학교적응

청소년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자아의식과 미래에 대한 조망, 자율성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청소년이 성장하고 있는 환경은 청소년

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rockett & Crouter, 1995). 청소년기에서 학교는 개인의 성장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기관으로 학교생활의 적응은 청소년기뿐 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다(김태화, 2012).

학교적응은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학업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조화의 측면에서 정의내리고 있다(정규석, 2004; 곽수란, 2006; 이원진, 2011). 한편으로 학교적응을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또래와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인 학업을 잘 이행하며, 또한 학교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속감을 가지는 것(김혜래·최승희, 2009)으로, 김용래(1993)에 따르면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 내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학교환경 전반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고찰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이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교사, 친구관계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되어 학교환경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문제에서 학생 스스로 잘 대처해 나가며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 2. 가족건강성

건강한 가족에 대한 미국의 연구는 1960년대 초반 Otto(1962)의 무엇이 건강한 가족인가 ?라

는 연구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Stinnett & DeFrain, 1985; Beaver & Hampson, 1990; Epstein et al., 1993; Olson & DeFrain, 2003). Otto(1975)에 의하면 가족 개개인의 자원과 잠재력을 발전시켜 가족집단과 가족원 개개인들의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힘과 역동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Olson & DeFrain(2003)은 어떤 가족이든 강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가족강점이 가족의 잠재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의 건강성이 아닌 가족의 기능의 건강성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터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시작되어 IMF이후 가족해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가족의 다양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을 통해 건강가정을 유지, 보호하고 이혼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문제와 해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가족건강성이 강조되면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건강성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졌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전후의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전의 경우 유영주(2001)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접근을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건강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것으로 가족 내의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 가족의 특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연구에서 국내 가족건강성 척도개발을 통하여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으로 가족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를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파악하였다(유영주, 2004).

이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가족은 첫째, 가족의 유대가 강하다. 즉, 서로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 것으로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사소통 면에서 건강한 가족은 의사소통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경청과 주목이 잘 이루어지며, 싸울 때도 효과적으로 싸운다. 셋째, 문제해결 수행능력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능력, 가족구성원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능력 등 위기나 문제를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넷째, 건강한 가치체계와 목표를 공유하고, 전통과 가족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가족 가치관이나 규율의 원리가 명확하게 설명되는 가족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국내 가족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가족건강성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도출한 결과 가족건강성은 기본적으로 물질 토대인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가족 간의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역할을 공유할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조희금 외, 2005).

이러한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가족원간 갈등의 합리적 해결, 가족의 강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가족내적 건강성을 바탕으로 가족 외부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이선미, 2011).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가족의 건강성은 청소년이 가족이라는 범주 속에서 부모, 형제와 가족구성원 개개인간의 관계 속에서 물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서로간의 유대관계가 원활히 유지되어 구성원 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원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적극적

으로 대처해 나가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사회적 지지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란 기본적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 가족, 친구, 선생님의 관계에서 청소년 개인이 느끼고 인지하는 측면에서 상호간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긍정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받는 긍정적 자원(Cohen & Hoberman, 1983)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자원이다. 따라서 애정, 존중, 승인, 소속감 및 정체감과 같은 욕구들은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만족(Thoits, 1986)되므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정체감을 유지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상황에서 문제를 완화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대인관계기술의 습득과 유지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지지 받고, 인정 받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이경주, 1997)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친구, 교사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 등의 긍정적 사회적 자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 4.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학교적응의 예측요인으로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박민주·황기아, 2006; 임정아, 이인수, 2006; 이해경2009; 김경은·최은희, 2010)에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발견되어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의 향상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예측요인으로서 가족건강성을 설정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선행연구(김지은, 2006; 손태주, 2012; 김태화, 2012; Ryan, Stiller & Lynch, 1994; Mallinckrodt & Wei 2005)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만족할수록 학교적응도는 높았다.

이상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은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연결 지어 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다른 학생들과의 지지로 유대감을 통하여 무기력을 회복하게 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성화,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 문제에 개입될 때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선행연구(장성화, 2010; 정지영·임정하, 2011; 위중희, 2012 ; 이지훈 외, 2012)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와 정적인 관계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 및 성취와 더불어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유대가 균형 있

게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과 사회관계에서 자신감을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가족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연구결과(이지훈 외, 2012)를 보인다. 즉,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면 가족들 간에 화목하며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되어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좋아지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Guest & Biasini, 2001; 손향숙, 2005; 박재연, 2009; 엄태완, 2009; 노충래·김설희, 2012)에서 사회적 지지를 매개효과 모델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어떤 스트레스나 위협의 수준과 관련 없이 적응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지며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 매개효과를 가정하여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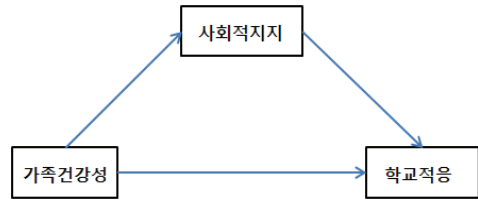
#### 1. 연구모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통제변수: 학년, 성적, 월평균 가계소득, 부모의 맞벌이 유무)

<그림 1> 연구모형

것이다.

가설3.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시군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부터 10월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위하여 연구원이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교사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설문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을 부탁하여 회수하였고, 총 49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측정도구

##### 1)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어은주·유영주(1995)가 개발한 ‘가족의 건강도’ 척도를 수정, 보완한 22개 문항을 김혜신(2011)이 타당도검증을 통해 수정한 15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에 관한 문항은 의사소통에 관한 5문항, 가족유대에 관한 5문항, 가치공유에 관한 2문항,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3문항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졌다. 가족건강성에 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 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가족 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53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Dobow &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Harter(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근거로 만들어진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고로 김세원(2003)이 수정·보완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 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93으로 나타났다.

### 3) 학교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김용래(2000)가 제작한 척도로, 1993년 제작한 것을 1995년과 2000년도에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재구성된 것 40문항으로 문항의 측정 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평점 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24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인

매개모형 검증은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으로 인해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Kenny, Kashy & Bolger, 1998),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을 연구모형에 직접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모형설정의 오류로 인한 편향된 추

정치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인이 있을 경우에 연구모형에 직접 포함시켜 그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의 선정을 위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결과 성별(이수경, 2004; 장소현, 2010; 이은경, 2012), 학년(이정주, 2011; 이영훈, 2011), 성적(이신숙, 2013; 이영훈, 2011), 소득(박민주·황기아 2007; 홍정미, 2008), 맞벌이여부(김서연, 2006; 이현화, 2012)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으로 고찰되어 이를 토대로 성별, 학년, 성적, 소득, 부모의 맞벌이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모형검증에 투입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Kenny와 그의 동료들(1998)이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의하여 3단계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은 Sobel의 z-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성별	남	240	49.0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28	5.8
	여	252	51.0		100만원~150만원미만	47	9.8
학년	1학년	78	15.9		150만원~200만원미만	88	18.4
	2학년	261	53.3		200만원~300만원미만	103	21.5
	3학년	151	30.8		300만원~400만원미만	84	17.5
학교 성적	상위권	128	26.1		400만원~500만원미만	60	12.5
	중위권	249	50.8		500만원이상	69	14.4
성적	하위권	113	23.1	맞벌이	예	317	65.1
				여부	아니요	170	34.9

분석결과, 남학생이 240명(49.0%), 여학생이 252명(51.0%)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78명(15.9%), 2학년 261명(53.3%), 3학년 151명(30.8%)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학교성적은 상위권 128명(26.1%), 중위권 249명(50.8%), 하위권 113명(23.1%)으로 나타났고, 가계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103명(21.5%)으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이 28명(5.8%)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 가정이 317명(65.1%)이었고, 아닌 가정이 170명(34.9%)으로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 2.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가족건강성은 평균 3.44, 학교적응 3.03, 사회적 지지 3.44로 중앙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정규분포 가정

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으며, 왜도는 정상분포 곡선이 좌우로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값이며, 첨도는 정상분포 곡선의 중심이 뾰족한지 완만한지를 알려주는 값으로 왜도값이 절대값 3을 초과하고, 첨도 값이 절대값 8 또는 10을 초과하면 정규분포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김대업, 2008; 배병렬, 2007)한다. 분석결과 왜도는 절대값 3미만으로 나타났고, 첨도는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 김대업(2008)과 배병렬(2007)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r=.350, p<.001$ ),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r=.614, p<.001$ )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정적상관( $r=.555, p<.001$ )이

〈표 2〉 변인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건강성	1.00	5.00	3.442	.783	-.049	.643
학교적응	1.17	5.00	3.038	.469	.002	1.556
사회적 지지	1.92	4.79	3.448	.495	.156	-.227

<표 3>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가족건강성	-		
사회적 지지	.555***	-	
학교적응	.350***	.614***	-

\*\*\* p < .001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을 선정할 경우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과 상관이 유사하거나 독립변인보다 종속변인과 더 큰 상관을 보이는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김미정·염동문, 2013).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건강성( $r=.555$ )과의 상관보다 학교적응( $r=.614$ )이 더 큰 상관이 있으므로 매개변인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Kenny와 그의 동료들(1998)이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의하여 1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3단계에서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1단계)

1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 $\beta=.354,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높으면 학교적

<표 4>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1단계)

구분	B	SE	$\beta$	t	p	VIF	
통제변인	상수	2.110	.114	18.502	.000		
	성별	-.081	.042	-.072	-1.914	.056	1.031
	학년	-.013	.028	-.017	-.457	.648	1.030
	성적	.080	.028	.113	2.903	.004	1.098
	월평균가구소득	.006	.012	.021	.525	.600	1.162
	부모 맞벌이	-.033	.039	-.031	-.830	.407	1.023
독립변인	가족건강성	.354	.025	.556	14.223	.000	1.105

R square(adj. R square) =.355(.346), F=42.673\*\*\*

Durbin-watson=1.862

성별 :남=1, 여=0 / 부모맞벌이: 예=1, 아니오=0으로 가변인 처리

\*\*\* p < .001

(표 5)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2단계)

변인	B	SE	$\beta$	t	p	VIF	
통제변인	상수	2.229	.121	18.408	.000		
	성별	-.016	.045	-.015	-.360	.719	1.031
	학년	-.048	.030	-.068	-1.598	.111	1.030
	성적	.116	.029	.174	3.935	.000	1.098
	월평균가구소득	.009	.012	.034	.747	.455	1.162
	부모 맞벌이	-.040	.042	-.041	-.967	.334	1.023
독립변인	가족건강성	.195	.026	.326	7.373	.000	1.105

R square(adj. R square) =.175(.164 ), F=16.419\*\*\*  
 Durbin-watson=1.750  
 성별 :남=1, 여=0 / 부모맞벌이: 예=1, 아니오=0으로 가변인 처리

\*\*\* p < .001

응력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명력은 34.6%였다.

2)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2 단계)

2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 $\beta=.195,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높으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

력은 16.4%였다.

3)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3단계)

3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가족건강성은 가족적응에 정적인 영향( $\beta=.536,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인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표 6)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3단계)

변인	B	SE	$\beta$	t	p	VIF	
통제변인	상수	1.097	.138	7.966	.000		
	성별	.027	.039	.026	.699	.485	1.039
	학년	-.041	.026	-.058	-1.582	.114	1.030
	성적	.072	.026	.109	2.833	.005	1.118
	월평균가구소득	.006	.011	.022	.558	.577	1.162
	부모 맞벌이	-.023	.036	-.023	-.634	.527	1.024
독립변인	가족건강성	.005	.027	.008	.184	.854	1.584
매개변인	사회적 지지	.536	.042	.571	12.615	.000	1.549

R square(adj. R square) = .385(.376), F=41.585\*\*\*  
 Durbin-watson=1.854  
 성별 :남=1, 여=0 / 부모맞벌이: 예=1, 아니오=0으로 가변인 처리

\*\*\* p < .001

〈표 7〉 Sobel z-test검증

경로	a(SEa)	b(SEb)	Zab
가족건강성→사회적 지지→학교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345(025)	.536(.042)	9.479***

\*\*\* p < .001

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018(.326×.536=.018)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7.6%로 나타났다.

#### 4.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을 매개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Sobel z-test를 실시한 결과(표 7),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경남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가족건강성 향상을 통한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 방안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높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한 지원이 높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선행연구(장성화, 2010; 정지영·임정하, 2011; 위종희, 2012; 이지훈 외, 201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이나 성취와 더불어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유대가 균형 있게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이 사회관계에서 자신감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박민주·황기아, 2006; 임정아·이인수, 2006; 이혜경, 2009; 김경은·최은희, 2010)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 한 상태에서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 $\beta=.326$ )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의 향상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족체계의 안정성을 통한 가족의 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은 가족이라는 범주 속에서 부모, 형제와 가족구성원 개개인간의 관계 속에서 물리적, 정서적으

로 안정되어 서로간의 유대관계가 원활히 유지되며 구성원 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원간의 문제를 해결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건강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Ryan, Stiller & Lynch, 1994; Mallinckrodt & Wei 2005; 김지은, 2006; 하현주·박원모·박명숙·천성문, 2008; 장성화, 2010; 손태주, 2012; 김태화, 2012)와 일치하는 결과로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를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선행연구(Guest & Biasini, 2001; 손향숙, 2005; 박재연, 2009; 엄태완, 2009; 표갑수·이진성, 2009; 노충래·김설희, 2012)에서와 같이 매개역할을 통하여 완충작용을 하는 변수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족건강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보다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개입을 통하여 학교적응력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한 간접효과가 검증되어 이들 세 변인간의 직·간접 인과관계가 검증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인 요인뿐 만 아니라 환경속의 개인으로 평가되어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초기 청소년에 해당되는 중학생 역시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어진다고 보고 중학생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인 가족, 학교, 사회라는 관

점에서 이러한 체계들이 상호작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지를 통한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체계의 개입을 통한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향상 방안도 요구되지만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체계의 개입을 통한 간접적 개입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가족의 병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의 건강성 요인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기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고 가족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수로 확인되어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개입될 때,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족이 학교적응력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적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CYS-Net)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통합 프로그램의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청소년 단계에서 학교적응이 중요하므로 적응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학교청소년의 중요 상호작용

자인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또래관계 향상 및 교사와의 친밀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청소년 및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통제변인 보다 가족 건강성과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책임은 청소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공동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족의 경우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가족체험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도 학교상담을 특화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점검하여 위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에 맞는 지지, 지원과 상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환경제공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초등학교 시기인 아동기와 청소년 후기단계에 속하는 고등학생과는 다른 양상의 발달특성을 가진다. 인간의 발달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된다고 볼 때, 청소년기의 중요환경인 가족, 학교, 사회는 중요한 환경체계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환경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아동기와 청소년 후기단계에서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아동기, 청소년 초기, 청소년 후기의 세 집단 간에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초기 청소년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 향상 및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1) 박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2)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업중단학생 실태. 교육과학기술부.
- 3) 김경은·최은희(2010).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 4) 김대업(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분석. 파주 : 학현사.
- 5)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김미정·염동문(2013).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2), 1-29.
- 7) 김서연(2005).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용래(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_\_\_\_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

- 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지, 17, 3-37.
- 11) 김지은(2006).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53-78.
  - 12) 김태화(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김혜래·최승희(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제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30, 159-182.
  - 14) 김혜신(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5) 노충래·김설희(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에 대한 개인요인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9, 39-68.
  - 16)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민동일(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박민주·황기아(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10(2), 43-51.
  - 19) 박재연(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 20) 배병렬(2007). AMOS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 도서출판 청람.
  - 21) 손태주(2012).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관계에서 도움추구행동의 경로모형.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2) 손향숙(2005). 집단 따돌림 지속의 결정요인 피해 아동의 대처 방식,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3), 223-244.
  - 23) 송희원·최성열(2012). 빈곤여부,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6(3), 651-672.
  - 24)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1-94.
  - 25) 엄태완(2009). 청소년의 무망감 관련요인과 자살생각의 관계 : 사회적 지지의 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15), 211-237.
  - 26) 위종희(2012).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7)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 교문사.
  - 28) \_\_\_\_\_(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29)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0) 이선미(2011). 성인남녀의 가족 건강성 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9(5), 129-142.
  - 31) 이수경(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2) 이신숙(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3) 이영훈(2011).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학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4) 이원진(2011).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5) 이은경(2012).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이정주(2011). 중학생들의 가족스포츠여가활동 참가에 따른 갈등해결 전략과 인터넷게임 중독 성향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7) 이지훈·박옥임·김진희(2012).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9, 135.
- 38) 이현화(2012). 초등학생의 부모맞벌이와 형제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9) 이해경(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0) 임선아(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존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적관계. 초등교육연구, 26(1), 121-139.
- 41) 임정아·이인수(2006).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아동교육, 15(2), 37-62.
- 42) 장성화(2010). 대안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인과적 구조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3) 장소현(2010).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4)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32-50.
- 45) 정지영·임정하(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1), 37-51.
- 46) 조희금·김경신·정민자·송혜림·이승미·성미애·이현아(2005). 건강가정론. 서울 : 신정.
- 47) 표갑수·이진성(2009). 중학생의 귀인성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6(1), 251-270.
- 48) 하현주·박원모·박명숙·천성문(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총, 7(1), 1-19.
- 49) 홍봉선·남미애(2010). 청소년복지론. 서울 : 공동체.
- 50) 홍정미(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1) Barbara, M.B. & Martha, J.G.(1999). School adaptation: A triangular proces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2), 345-370.
- 52) Beaver, W.R. & Hampson, R.B.(1990). Successful families. New York : Norton.
- 53)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54) Crockett, I.J. & Crouter, A.C.(1995). Pathways through adolescence. Mahway. NJ : Lawrence Erlbaum.
- 55) Dobow, E.F. & Ulman, D.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56) Epstein, N.B., Bishop, D.S., Rayan, C., Miller, I. & Keitner, G.(1993). The McMaster model of family functioning. In F.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 138-160, New York : London.
- 57) Erath, S.A., Flanagan, K.S. & Bierman, K. L(2008). Early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 associations with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17(4), 853-870.
- 58) Guest, K.C. & Biasini, F.J.(2001). Middle childhood, poverty, and adjustment: Does social support have an impact? *Psychology In The Schools*, 38(6), 549-560.
- 59)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Denver : University of Denver.
- 60) Kaplan, C.G.(1977). Social support health. *Medical care*, 15, 50.
- 61) Kenny, D.A., Kashy, D.A. & Bolger, N.(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4), 233-265. Boston, MA : McGraw-Hill.
- 62) Mallinckrodt, B. & Wei, M.(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58-369.
- 63) Olson, D.H. & Defrain, J.(2003). *Marriages and families*. New York : McGraw Hill.
- 64) Otto, H.A.(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ies*. New York : McGrawHill.
- 65) \_\_\_\_\_(1975). *The use of family strength concept and methods on family life education : A handbook*. Beverly Hills. California : Holistic Press.
- 66) Ryan, R.M., Stiller, J.D. & Lynch, J.H.(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2), 226-249.
- 67) Stinnett, N. & De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 Little Brown.
- 68) Thoits, P.A.(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16-423.

- 투 고 일 : 2013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7월 6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7월 24일